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례 반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6854
----------	------

발의연월일 : 2009. 12. 4.

발 의 자 : 이정현 · 임영호 · 박은수
유정복 · 박민식 · 김을동
최구식 · 구상찬 · 김옥이
이한성 · 이해봉 · 현경병
김태원 · 한선교 · 김성태
황우여 · 조원진 · 이범래
김성수 · 안형환 · 김선동
이경재 · 안효대 · 이계진
김세연 · 김장수 · 백재현
이종구 · 송훈석 · 김소남
허원제 · 김영우 · 박선숙
최영희 · 유기준 · 정수성
이주영 · 김부겸 · 권영세
권선택 의원(40인)

주 문

조선왕조 의례는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과정 등을 상세하게 적고 그림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이는 의례가 되풀이되는 왕실에서 의례의 본보기를 만들고 후대에 전하고자 도감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문서로서,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런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 강화도에 사고를 설치하고 실록과 의궤 등의 주요 문서를 보관해왔다. 일본은 조선을 강제점령한 이후 1922년 조선총독부 기증의 형식으로 일본 궁내청 서릉부로 의궤를 반출, 현재까지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72종의 조선왕조 의궤가 보관되어 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도쿄대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대한민국에 반환한 역사문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우호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의 원산국 (또는 출처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이 책임감 있게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경술국치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 대한 의미있는 반성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하여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대한민국’으로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조선왕조 의궤’는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과 행사의 준비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림으로 도식화한 문헌임. 이는 반복되는 왕실의 행사와 의례의 본보기를 만들고 후대에 전하고자 하여 도감(都監)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우리 민족의 기록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임.

‘조선왕조 의궤’는 경외사고(京外史庫)(오대산 사고, 태백산 사고 등)에 보관, 수호사찰(월정사, 전등사, 안국사, 각화사) 등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었음. 현재 ‘조선왕조 의궤’의 반환운동을 전개해온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에 의하면,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는 총 72종으로 밝혀졌고, 각각의 의궤 표지에는 원래의 소장처가 명기되어 있으며, 의궤의 뒷장에는 ‘大正 11年 5月 朝鮮總督府 寄贈’이란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임.

또한 1973년 12월 18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3187(X XVIII)’을 포함한 유엔과 유네스코의 諸결의와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등 문화재의 원산국(또는 출처국) 반환을 확립한 국제조약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조선

왕조 의궤'는 원산국(또는 출처국)인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할 것임.

정부가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 대한 의미있는 반성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하여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즉각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